

무엇이 가장 뜨거울까

글. 송자은 (편집부)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방송가도 각종 이슈로 뜨겁다.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한 방송가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자료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출처 : SBS <미운우리새끼>

공서리 (공상+럭셔리)

올로(YOLO)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면 공서리는 풍족하지 않은 삶에서도 자신만의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연어스테이크 대신 '연어머리 스테이크'를 해먹고, 라면을 끓이면서 한우 한 점을 넣는 등 다소 공상맞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출처 : EBS <까칠남녀>

뜨거운 감자, 젠더(Gender)

여성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발언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여성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축, 방송가에서도 여성 진행자 출연, 여성-젠더 문제 등에 대한 토론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소 자극적인 소재나 언행 등으로 화제가 되는 부분이 아쉬우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여겨진다.

비디오스타(MBC에브리원) / 뜨거운 사이다(On Style) / 까칠남녀(EBS)



출처 : tvN <동지탈출>

엄마야 누나야 예능가자

요리, 육아를 거쳐 가족 예능이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MBC <아빠, 어디가?>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방송에서 담아냈다면 최근에는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 '아내에게 휴식을 주는 남편' 혹은 '장성한 아이들의 독립기' 등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 예능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조성 등 비판적인 여론도 있으나 가족 간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해결과정을 제시하는 것 등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 미운우리새끼(SBS) / 동지탈출(tvN) / 싱글와이프(SBS)



출처 : tvN <크라iminal마인드>

가지각색 드라마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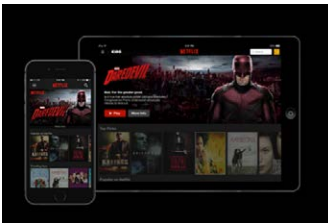
올 여름의 드라마는 '장르물의 강세'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판타지, 스릴러, 범죄 심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약세를 보였던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탄탄한 구성과 한층 짙어진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만난 세계 (SBS) / 조작(SBS) / 명불허전 (tvN) / 크리미널마인드 (tvN)



사그라지지 않는 인터넷 방송의 인기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의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도 활기를 띤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아프리카TV가 진행자 수익 문제 등 폐쇄적인 방송 정책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카카오TV, 유튜브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87.1%, 페이스북 30.4%, 네이버TV캐스트 23.8%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 Netflix

유료 OTT가 넘어야 할 산

방송 산업에 있어 태풍의 눈 격인 OTT(Over The Top) 산업이 국내에서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료 OTT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단적인 예로 2016년 한국에 상륙한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1년 동안 유료가입자가 8만 명에 그쳐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국내 서비스 OTT인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캐스트 등이 무료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VOD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가 증가했는데, 이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오리지널 콘텐츠에 뛰어든 SNS

페이스북의 영상 플랫폼 '워치'(watch)가 지난 9일 공개됐다. 지난해 비디오 탭 도입 이후 이용자들의 영상 시청 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바일, PC, TV 앱에서 주제에 따라 구성된 TV쇼와 라이브 영상, 녹화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플랫폼 개설을 계기로 현재 준비 중인 페이스북 오리지널 TV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초부터 페이스북 TV 제작을 위해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노출 강화, VR 강화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TV 및 미디어 산업 전문가를 고용해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미디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채비를 끝낸 듯 보인다.